뉴시티교회 리딩지저스

2026.10.5.-10.10

연대기순 성경 통독 40주 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느헤미야 2~13장, 시편 126편, 말라기서, 누가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글 오종향

뉴시티교회

여는 글

존경하는 리딩지저스 성경통독자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는 구약 읽기를 마치고, 드디어 신약으로 진입합니다. 월요일에는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앞에서 "일어나 건축하자" 외치는 장면을 읽습니다. 목요일에 그 성벽이 봉헌되는 감격적인 장면을 봅니다. 금요일에 우리는 구약성경 마지막 주자인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어서 토요일부터 복음서를 시간순으로 추정하여 배치한 순서로 읽어갑니다. 네 권의 책을 교차하며 읽는 것이 생소한 분에게는 불편한 점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네 명이 쓰는 카메라 화각이 동일한 예수님을 어떻게 동일하게 또는 다채롭게 보여주는지 읽는 유익이 크리라 믿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네 화면이 성경통독자 여러분에게 소상하고도 신선하게 펼쳐지기를 기도합니다.

금요일 밤 금요기도회에서 우리는 오랜만에 복음서로 들어가 누가복음 1장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기름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눅 1:8-17). 주일 강단에서는 토요일에 읽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구원자이신지 깊은 위로와 도전을 나눕니다 (함께하시는 하나님, 마 1:1-17, 21-23).

구약 통독의 여정을 완주하신 모든 분께 축하드립니다. 아직 못 마치신 분들은 신약통독 진도에 함께 맞추어 매주 보조를 같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날 못한 숙제를 계속 붙들지 말고, 매일 매주 신선하게 동역자인 성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리딩지저스 신약을 기대하며, 오종향 목사 드림

이번 주 한눈에

10월 5일 (월) 일어나 건축하자

10월 6일 (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10월 7일 (수) 주는 사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0월 8일 (목)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는 분

10월 9일 (금)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10월 10일 (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왼쪽 면에서 말씀을 읽고, 오른쪽 면에 응답을 적으며 한 주를 걸어가십시오.

10월 5일 (월) | 느헤미야 2~5장

일어나 건축하자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넉 달을 기도한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예루살렘으로 보내 달라 청했습니다(2:4-5). 밤중에 성을 둘러본 뒤 말했습니다.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2:17). 이에, 백성이 "일어나 건축하자" 화답했고(2:18), 한 손에 연장을, 한 손에 병기를 잡고 쌓았습니다(4:17).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느헤미야는 넉 달 동안 사적으로 애통하며 기도했고, 공적으로 왕 앞에서는 잠깐 기도했습니다. 개인적인 긴 기도가 있었기에 업무 공간에서 짧은 기도가 가능했습니다. 넉 달 동안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듯했지만, 그 사이에 왕의 마음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울며 기도하는 시간은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신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사이 하나님은 완벽하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4:20). 이 고백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섭리와 인간이 충성하는 열심이 영적으로 조화된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사람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습니다.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둘 모두였고,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허문 담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으로 다시 쌓으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 주님은 무너진 가정과 공동체를 세우시는 건축자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두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한 손으로는 맡은 일을 위한 연장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기도의 병기를 높이 듭니다.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 몫으로 오늘 주신 한 구간을 쌓는 신실한 종을 주님은 찾으십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10월 5일 (월) 일어나 건축하자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10월 6일 (화) | 느헤미야 6~8장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성벽이 오십이 일 만에 재건되었습니다(6:15). 일곱째 달에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율법책을 청했고,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하자 백성이 울었습니다(8:1-9). 그렇지만, 느헤미야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8:10).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성벽이 완공되자 느헤미야 앞에 더 어려운 공사가 남았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무너진 마음을 세우는 일이 더 어려웠습니다. 마침내, 백성이 말씀을 듣다가 울었을 때 느헤미야는 울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더했습니다. 가서 먹고 마시고, 준비하지 못한 이에게 나누어 주라(8:10). 말씀을 떠났던 삶을 자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잔치를 차려 주셨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고양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며 기뻐하시는 기쁨이 전이되는 것입니다. 오백 년 뒤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 읽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눅 4:21).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오셨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내가 기뻐하는 자"(마 3:17)라 부르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동일한 사랑의 시선으로 보십니다.

자책은 변화의 근본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심을 알고 확신할 때 강력한 토대가 쌓입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할 때, 무너졌던 삶도 다시 세워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당신이 발견한 기쁨을 아직 준비하지 못한 이웃과 나누어 보십시오. 그 나눔이 느헤미야가 말한 힘입니다. 그 나눔이 전도입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10월 6일 (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힘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10월 7일 (수) | 느헤미야 9~11장

주는 사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백성이 통회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모여 죄를 자복했습니다(9:1-2). 레위 사람들이 창조에서 포로기까지의 역사를 기도로 읊었습니다. 중요한 후렴이 등장합니다. "주는 사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9:17). 백성은 하나님께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나이다"(9:36) 고백하고 하나님과 견고한 언약을 세워 인봉했습니다(9:38).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9장의 기도는 구약 전체를 한 페이지로 요약하기에 뜻 깊습니다. 하나님이 선과 구원을 베푸시지만, 백성은 반복해서 망각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그들을 살리시고 돌이키십니다. 구약 성경 내내 이 사이클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사람은 같은 죄에 다시 넘어집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죄보다 진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쌓은 무거운 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의 어깨에 그 무거운 죄짐을 올려놓으셨습니다(사 53:6). 예수님은 그 어깨에 수십 kg 나가는 나무 십자가만 지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죄짐을 지셨습니다. 백성은 옛 언약에 서명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성찬의 잔을 들고 서약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눅 22:20). 구원의 약속이 유효한 것은, 당신의 결심에 달려있지 않고, 예수님의 영원한 십자가 언약에 있습니다.

사죄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수치와 잘못을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마음에 감춘 죄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회개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살리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선과 구원을 베풀어주십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10월 7일 (수) 주는 사죄하시는 하나님이시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10월 8일 (목) | 느헤미야 12~13장; 시편 126편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는 분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봉헌식 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습니다(12:43). 그런데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13:6), 도비야가 성전 방에 살림을 차렸고, 십일조와 안식일과 결혼이 다시 무너졌습니다. 돌아온 느헤미야가 기도했습니다.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13:31). 시편은 노래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시 126:5).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구약 역사서가 허망한 듯 끝납니다. 성벽은 복원되었지만 신앙은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자 공들였던 개혁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잠시 신경 쓰지 않았을 때, 중요한 것이 무너지는 일을 겪어 본 사람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익숙한 결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실패를 성경에서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느헤미야가 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결코 자리를 비우지 않는 메시야로 오셨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 28:20) 약속하셨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신 분이 부활 아침에 기쁨으로 거두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히 7:25).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십니다.

완벽한 존재여야 한다는 부담은 내려놓으면 좋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도, 울며 뿌린 씨는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충분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십니다.

말씀에 응답하기

10월 8일 (목) 자리를 비우지 않으시는 분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10월 9일 (금) | 말라기 1~4장; 누가복음 1장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시자 백성이 반문했습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말 1:2). 이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4:5). 히브리어 구약성경의 마지막 문장은 "저주"라는 단어로 끝납니다 (4:6). 반면, 신약성경은 "복음의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사백 년 뒤, 성전에서 분향하던 늙은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눅 1:13).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오늘 구약 통독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말씀은 저주였고, 그다음은 사백 년 침묵이었습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 사가랴 부부는 파파 노인으로 늙어서도 기도했습니다. 천사의 첫 말은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들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응답 없이 오래 기도하는 것 같아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들립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기한에 응답하십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동안에도 약속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가 예언한 엘리야의 사역은 사가랴의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눅 1:17). 말라기가 예고한 "공의로운 태양"(말 4:2)은 사가랴의 노래에서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눅 1:78) 우리에게 비추었는데, 그 해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심으로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구약을 완주하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밤 금요기도회에서 사가랴처럼 오래된 간구를 응답하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갑시다.

말씀에 응답하기

10월 9일 (금) 네 간구함이 들린지라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

10월 10일 (토) | 요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무 살피기, 오늘의 본문 이해

요한은 창세기의 첫 단어로 복음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요 1:1). 마태는 족보(계보)로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마 1:1). 당시 족보에 등장하지 않던 여인들의 이름이 그 계보에 등재되었습니다. 아기의 이름은 예수/임마누엘이었습니다(1:21-23).

숲 바라보기, 그리스도 중심 묵상

마태복음 1장 족보를 찬찬히 읽어 보십시오. 아브라함, 다말, 라합, 룻, 다윗, 요시야, 스룹바벨. 지난 9개월 동안 구약에서 접한 이름들이 한 장에 모여 있습니다. 그 족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창녀와 이방 여인과 실패한 여자, 쓰러진 남자, 유배 간 지도자가 들어 있습니다. 지우고 싶은 부끄러운 과거가 알알이 박혀있는 명단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물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죄인이었기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요 1:14). 거하셨다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성막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마 1:23). 죄인인 당신과 함께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죄인인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계보에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멋지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하게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완벽할 수 없는 나를 위해 완벽하신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내일 주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같이 섭시다.

말씀에 응답하기

10월 10일 (토) 말씀이 육신이 되어

1. 성경 요약

오늘 본문의 핵심을 나만의 언어로 정리해 보십시오.

2. 성경 필사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옮겨 적고, 그 이유를 간략히 남기십시오.

3. 실천과 기도

삶 속에서 실천할 점과 기도 제목을 한두 문장으로 적어 보십시오.